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16. 10. 21.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10. 19. 이필레 의원 외 5명
- 나. 회부일자 : 2016. 10. 20.
- 다. 상정일자 : 제20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6. 10. 2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전승학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가전기기의 보급 확대와 대형화 및 이상기후에 따른 냉난방 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은 전기요금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체 전력의 80%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춘 채 13.5% 밖에 되지 않는 주택용 전기 사용을 마치 전력난의 주범처럼 몰아가는 현재의 누진제는 많은 불합리함을 갖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지출한 전기요금은 약4,806억원으로학

교당 연간 평균 3,500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서민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누진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 하는 등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함.

3. 검토보고 (김용범 전문위원)

본 안건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1974년 도입 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누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우리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 하는 등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력히 건의한 사항임.

최근 가전기기의 보급 확대와 대형화 및 이상기후에 따른 냉난방 수요증가 등으로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은 전기요금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지난 7,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낮에는 폭염특보가 야간에는 열대야로 가마솥 같은 찜는 듯한 무더위가 밤낮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가정과 학교에서는 마음놓고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 6단계의 누진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최초100kwh까지는 1단계, 그 이후부터는 100kwh씩 2-6단계로 나누고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전기사용을 많이 할수록 요금단계가 높아지고 가격 차이는 최고 11.5배까지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누진제가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있어 주택용전력 소비자들은 산업용과 똑같이 쓰고도 최대 11배가 넘는 요금을 내는 이용자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에너지절약의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떠넘겨 징벌적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누진제는 많은 불합리함을 갖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서민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누진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 하는 등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 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 없음